


자연보전권역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 두배로 확대

 추진부서 |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☎ 031-887-3031

개선배경



-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 ·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㎡ 이상의 공장(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을 신설(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·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

 **관련 법령** :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, 제27조의2

(원칙) 공장건축면적 500㎡이상 공장의 신설 · 증설 · 이전 · 업종 변경 금지

(예외)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[별표3]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 · 증설 또는 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.

[기타지역]

- 현지 근린공장, 첨단업종 공장의 신 · 증설, 기존 공장의 증설
(신 · 증설 결과 공장 건축면적이 1,000㎡이내)
- 도시형공장, 건축자재업종 공장, 중소기업으로 신 · 증설 결과 1,000㎡이내
(이하 생략)

- 공장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양은, 공장건축(제조)면적이 아닌 업종별 생산시설과 공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환경 관련법이나 규칙에서 규제를 하여야 함.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보전권역의 공장건축(제조)면적을 일률적으로 1,000㎡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, 예외규정 적용 면적 확대 건의코자 하였음.

개선내용

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(2023. 4. 11.)
– 시행령 [별표3] 제3호나목 중 “1천제곱미터”를 “2천제곱미터”로 한다

개선 전

나.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(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**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** 해당한다)



개선 후

나.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(**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** 해당한다)

추진과정



- '20. 9.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스템 신고(산자부)
- '20. 7. 경기도 규제개혁과 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
- '21. 4. 경기도 규제개혁과 건의
- '21. 5.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스템 신고(산자부)
- '22. 7.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현황조사 제출
- '23. 3. 기업현장 맞손토크 실무회의 건의, 경기도 규제개혁과 중앙과제 건의
- '23. 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(2023. 4. 11.)

개선효과



-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 8개 지자체*의 공장 증설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더불어 신규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

* 여주, 이천, 광주, 양평, 가평, 용인, 안성, 남양주

